

大學教育의 本質과 學事除籍 문제

朴 先 榮

(東國大 教育學科)

.....
 대학가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成績 不良者에 대한 學事除籍 문제는 격동기의 높은 파고 속에서 대학 스스로 엄정한 학사 운영을 하지 못하고 교수의 성적 평가가 권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점과 아울러 대학교육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 문제는 학원 소요를 막기 위한 장치로서의 인식과 협의가 절었던 卒業定員制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

1. 教育의 本質과 評價

교육에서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 형성의 문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고, 여기에는 항상 바람직한 인간의 문제와 결부된 가치 평가를 동반하게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것이 어느 정도 명료하게 의식되어져 의도화되어 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의도적 교육이든 비의도적 교육이든 교육의 상황에서는 언제나 마찬가지이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도덕교육이나 예술교육에서는 타당하나 지식이나 기술의 교육에서는 반드시 그러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주장은 지식과 기술의 가치중립성, 즉 몰가치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식이나 기술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주장에는 많은 반론이 있을 수 있음은 익히 알려진 일이며, 설령 이 주장을 일단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일단 교육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것은 예외 없이 가치 평가의

대상으로 소화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식과 기술도 그것이 교육의 내용으로 채택되는 데에는 그러한 지식과 기술의 획득이 바람직한 인간 형성에 있어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일종의 가치 판단이 전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 판단은 본질적으로 가치 평가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 교육학에서 ‘교육은 그 자체가 價値企業’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일반적으로 교육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문제와 항상 결부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교육은 도덕적인 문제와의 관련성에서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언제나 가치 평가와의 관련성 속에서의 인간 행위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면 그 사회의 대표적인 의도적 교육기관이라 할 학교에서의 교육 행위에는 가치 평가의 성격을 띤 의도적 판단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또 있어야 마땅하다. 이와 같은 의도적 가치 판단을 흔히 교육학에서는 교육 평가라고

한다. 이처럼 교육 평가는 본질적으로 가치 판단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측정과 교육 평가를 개념적으로 명료하게 구분해 보는 것도 꼭 의의 있는 일이 되리라. 교육 측정이라고 하면 교육적 사실을 정확하게 量的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교육적 사실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람직한 인간 형성에로의 변화의 실태 이외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 측정은 그 성격에 있어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 판단의 개념인 것이다. 이에 비하여 교육 평가는 본질적으로 가치 판단의 개념에 해당한다. 교육 평가는 교육 측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그 가치의 정도를 따져 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 가치의 정도를 따져 보는 행위’는 무엇을 그 준거로 하는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육의 목표 또는 목적을 준거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교육의 목표 또는 목적은 교육 목적 또는 교육 이념을 단순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각 단계에 따라 각 영역별로 구체화시킨, 성취시켜야 할 인간 형성의 도달점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 평가는 곧 각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인간 형성의 도달점에 학생의 학습 성과가 어느 정도 이르러 있는가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가치론적 의미를 부여하는 판단 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 평가의 영역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학생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습 지도자(교사, 교수 등)를 대상으로 하여 지도의 내용이나 방법을 평가하는 학습 지도자 평가,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의 교육 운영 계획이나 인사 관리 또는 시설 관리 등을 평가하는 학교 평가, 학생의 삶의 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 생활이나 지역 사회의 실정 등을 평가하는 환경 평가 등이 모두 교육 평가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나 교육 평가의 중심점은 학생 평가에 모아지며 그 외의 다른 영역들에 대한 교육 평가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바람직하게 극대화하고 고도화시키며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밀발칭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 논의할 주제는 최근 대학에서의

학습 성과 불량자에 대한 학사 제적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미 위에서 검토해 본 교육의 본질과 평가에 관한 관점의 전제 아래 대학에서의 성적 불량자, 다시 말해 학습 성과 불량자의 학사 제적과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관점에서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다.

2. 大學教育의 本質과 評價

일반적으로 학교는 의도적인 교육을 하는 사회의 대표적 기관이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대한 교육 평가는 교육의 목표 또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는 행위라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평가——이 글에서의 ‘평가’라는 말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학생의 학습 성과에 대한 교육 평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문제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 목표 내지 교육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고 이 문제는 또한 대학교육의 본질과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의 형태 또는 성질을 그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분류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 보통교육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반적인 여러 특성 내지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렇다면 전문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특정한 일이나 직업의 내용과 표준에 비추어서 요구되어지는 諸 特性 내지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그러한 일이나 직업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르려 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학제에 따르면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는 보통교육기관이고——물론 고등학교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전문교육을 하고 있지만——대학은 전문교육기관이다. 한편 학교 교육을 그 목적과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나눌 때 일반적으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3 단계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의하면, 국민학교는 초등교육기관으로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초급 수준의 보통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중

학교는 중급 정도의 보통교육을 함으로써 중견 국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고등학교는 후기 중등교육기관인 바, 고급한 수준에서의 보통교육과 아울러 전문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교교육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대학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인과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아무리 새로운 지식과 기능의 고도화와 高學歷社會化, 그리고 이와 함께 대학생의 증가에 따른 대학교육의 일반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교육은 그 본질에 있어 보통교육이라는 의미에서의 대중교육을 하는 기관은 아니다. 학문적 이론과 방법의 탐구를 통해 고도의 지성을 연마하고, 이 지성의 연마 과정을 통해 격조 높은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사회의 지도적 인물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는 곳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기초 과정이나 교양 과정으로서의 교과목도 이런 의미와 수준에서의 기초 또는 교양의 교과목이며, 각 학과의 전공 과목 또한 그 분야의 전문인으로서의 교과목인 것이다.

대학교육의 본질 내지 목적이 이상과 같을진댄 대학에서의 교육 내용과 방법 또한 이러한 본질 내지 목적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평가 또한 여기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교수 확보율이나 시설 수준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위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그나마 교수의 질적 수준도 구미의 명문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 초빙의 과정이나 연구 시스템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경우 만족스러운 상태는 결코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大學史는 끊임없이 격동해 온 국가와 사회의 격랑 속에 휘말려 대학의 학문적 수준을 전실하게 다지고 높여 갈 수 있는 분위기를 견지해 오지 못했다. 이런 상태 속에서 교수 또한 적지 않은 경우 신념과 자신에 찬 학술 활동과 교수 활동의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교수의 권위에도 많은 손상을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욱이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 자체가 소용돌이 속에서 진동을 거듭해 오는 과정 가운데 인정과 편법의 평가 활동이 대학 안에서 때때로 있어 온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고, 제도적인 문제점에 의해 평가 방법이 구속되어져야 하는 경우를 당해 온 것이 또한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리하여 신성하고도 엄숙하게 받아들여져 마땅할 평가 결과가 시비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학사 제적이 최근 대학가에서 시비와 논란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상의 초래에 대해서는 넓게는 국가 사회와 대학 자체에, 좁게는 집권층과 교수를 핵심으로 하는 대학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成績 不良者와 學事除籍의 問題點

교육의 목적에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있다.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 특성과 능력을 갖게 함이 개인적 측면에서의 교육 목적이라 한다면 한 국가와 사회의 건설과 발전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게 함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교육 목적이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개인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택하여 교육 목적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정해진 수준이나 성질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전연 지니지 못한 학생에게 계속 동일한 수준과 성질의 교육 목적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행을 야기하는 것이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낭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진정 행복해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의의 있는 수준과 성질의 다른 길을 택하거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보나 교육적인 면에서 고려해 보나 원칙적으로 옳은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결을 전제할 때에 성적이 일정한 수준 이하이어서 도저히 수학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적을 시켜 해당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의의 있는 다른 길을 찾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우기 대학교육은 앞서 논의했듯이 보통교육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각 영역에 있어서의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전문교육이고 여기에는 이미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위하고 정치한 인과 방법을 탐구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됨에 있어서라. 대학교육의 성격으로 보아 수학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는 학사 제적의 제도적 강치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수준과 성질의 교육이나 다른 삶의 길을 위한 기회를 개방해 주는 것이 상대적인 의미에 있어 다른 단계의 학교에서보다도 대학에 있어서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학의 고등교육은 본질적으로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의 보통교육과는 다른 전문교육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꼭 어느 방면의 지도적 인물이 되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모두 학사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 결과 일정 수준의 성적을 취득치 못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경우 퇴교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 당연시는 대학 당국만이 아니고 대학생들이나 그 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일반 사회에서도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당연시에는 앞서 말한 교육의 원칙론의 시점에서만이 아니고 대학은 보통교육이 아니라 최고의 지성을 도야하는 고등한 전문교육의 기관으로서 이에 걸맞는 질적 수준을 견지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널리 보편화되어 있음도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가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성적 불량자에 대한 학사 제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얽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기까지 하다. 여기에는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국가 사회적 격동의 격랑 속에서 대학 자체가 엄정한 학사 일정을 운영해 오지 못한 데다가 교수의 성적 평가가 권위를 유지하지 못해 온 점

은 차치하고라도 대학교육의 제도적 문제점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그 출발 당시부터 많은 시비와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졸업정원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졸업정원제 이전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일정한 기간과 수준에서의 성적 불량자에 대해서는 제적을 포함한 학사 징계의 학칙을 마련하여 실시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학생들에 대한 성적 평가나 학교 당국의 학사 행정이 모두 항상 일정 수준 이상에서의 엄정성을 견지해 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대학 풍토를 바로 잡아 대학교육에 있어 수업 시간의 양적 확보와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명분 아래 1981년 졸업정원제가 실시된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 사회적 문제로 심각히 대두된 대학 입시를 위한 누적되는 재수생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도 반영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의 이 제도는 문교법령에 기초하여, 졸업할 수 있는 학생 수자의 30%를 더 선발하여 입학시키고 졸업은 졸업할 수 있도록 정해진 학생 수자만을 배출케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등록 제적자나 자퇴자 또는 상벌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한 제적자 이외에도 일정 비율의 학생에게는 졸업을 시킬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성적 순서에 따라 일정 비율의 학생은 제도적으로 졸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절차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기는 했다 하나——서둘러 상대평가제, 학년별 진급정원제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출석 확인과 교수의 성적 평가의 객관적 엄격성이 크게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이 졸업정원제는 이미 언급했듯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누적되는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마련되었고 부분적으로는 공헌도 했다고 하나 적지 않은 경우, 특히 대학인들에게는——이 제도의 공식적 명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학원 소요를 막기 위한 장치로서 일종의 학원 탄압이라고 인식되어 왔고 또 그러한 혐의가 짙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며, 이에 따라 학원 소요의 중요한 불씨가 새로이 추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이

졸업정원제는 그 자체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라기보다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성적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 석차가 낮은 일정 비율의 학생은 졸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의 노력과 좋은 성적을 획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학생들이 자기보다 노력을 않고 성적도 나빠야만 자신의 졸업이 가능 내지 보장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웃과의 협동이나 사랑 내지 우정보다는 이웃 내지 타인과의 대립과 시기심을 조장하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하여 남이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기르게 되어 있다. 이야말로 비교육적인 제도라 아니 할 수 없으리라.

4년간 정상적으로 수학하고도 졸업 때에는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 대학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어질 수 있다. 이런 요인을 되도록 미리 제거하는 것은 대학 자체로서는 교육, 비교육의 문제 이전에 심각한 현실적 문제였을 것이다. 졸업정원제의 실시와 더불어 나타난 바, 문교 정책에 의한 학사 정계 내지 학사 제적의 강화, 학년 진급정원제 등 새로운 제도의 마련은 대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학 현장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골육지책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사 제적이 예상되는 학생들 가운데는 매우 격렬한 시위의 담당자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 심정적으로 적지 않은 학생이 이러한 시위에 공감을 갖게 되는 현상까지 낳게 했다. 그리하여 결국 1988학년도 입학생부터 이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최근 대학가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학사 제적에 대한 것은 이와 같이 문제점을 그 자체내에 많이 가지고 있는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또——그것이 사실이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대학인들에게 학원 탄압의 정치적 산물로 이루어진 제도라고 인식되어 호응보다는 비판을 받아 온 졸업정원제와 관련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는 윤리적이고도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학사 제

적 제도에 대한 원칙론적인 정당성은 현실적으로 순순히 긍정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이 원칙론에도 다른 관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라. 예를 들면 평생교육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는 일정 수준의 성적을 취득치 못하면 각자 몇 차례고 계속 시도하여 스스로 성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해 주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대학생은 나이로 보아도 성인이고 이미 보통교육의 완성 단계를 마쳤으므로 각자 자신의 인생관에 따라 실패한 성적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함이 옳다는立論은 그 나름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자 형편에 따라 기간의 제한 없이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학에서는 항상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수학 기간을 4년에서 6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는 이와 같이 수학 기간이나 재수강의 기회가 무한정하게 개방되어 있는 대학이 있다는 말도 들리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평생교육의 이념에 비추어 이런 방향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있음직 하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와도 연관하여 논의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선발고사에 의해 대학에 입학된 학생은 이미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이 구비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성적 불량은 기본적인 수학 능력의 부족에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었든 또는 육체적인 것이었든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사회적인 것이었든 개인이 안고 있는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 윤리적이고 교육적이라면 학사 제적의 제도에 의해 수학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정 기간과 재수강의 회수 및 학기별 이수 단위의 제한 없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기회를 널리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 결과의 평가는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학습 목표 내지 교육 목적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평가하는 데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사나 교수 등

학습 지도자의 지도 내용과 방법을 다시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료 내지 근거를 발견하는 데에도 크나큰 의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적이 불량하다 하여 수학 능력이 없으므로 일찌기 만 길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단정하고 매정하게 학사 제적만 하는 것을 능사로 삼는 것은 교육에 없는 비교육적 처사라고 비판되어질 수 있다. 오히려 교육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새롭게 構築化하고 강의 내지 지도 방법을 제검토하여 적절하게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진정 교육자적인 태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4. 問題克服의 方向을 찾아서

원래 필자에게 의뢰된 원고의 주제는 최근 대학가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성적 불량 학생에 대한 학사 제적'에 관한 것이었다. 편집자의 맨 처음 의도는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의 서로 다른 입장에서의 立論을 함께 실고 싶었던 것으로 들었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찬성과 반대의 어느 한쪽만을 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이는 이론적으로도 어느 한 가지 입장만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 당연히 이 문제는 평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이 평가 문제는 교육의 본질과도 연관되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주제의 성격상 그 가운데에서도 대학교육의 본질 및 평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학에서의 성적 불량자에 대한 학사 제적 문제는 역사적이고도 사회적인 산물로서의 특수한 제도라 할 수 있는 졸업정원제와 결부되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관계되는 점들이 모두 검토되어지고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필자가 이 글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핵심의 문제에 곧바로 접근치 않고 주변적이거나 서론적인 문제에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장황하게 늘어 놓은 듯한 것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이다.

그리하여 평가는 교육 행위의 본질적 측면 가

운데 하나로서 일종의 가치 판단이라고 했다. 대학교육은 보통교육의 완성 단계를 거친 후의 가장 고등한 수준의 교육으로서 전문교육이며, 따라서 대학에서의 성적 평가는 당연히 이러한 대학교육의 본질과 차원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게 그렇게 되어 오지 못한 배경과 이에 따른 문제점도 논의했다. 나아가 대학에서의 성적 평가에 따른 학사 제적의 윤리적이고도 교육적인 차원의 정당성을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원리와 이미 선발되어 입학된 학생은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의 수학 능력을 가졌다고 보는 관점에서의 학사 제적의 당위론에 대한 반론도 살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의 주제로 되어 있는 학사 제적은 현실적으로 졸업정원제와 관계되고 있는 바 이 제도와 얽혀 있는 문제점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와 같이 볼 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성적 불량자에 대한 대학에서의 학사 제적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그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대학인에게도 전연 동의를 얻지 못해 1988학년도부터 폐지되게 되어 있는 졸업정원제에 의해 과거에 학사 제적된 자에게도 소급해서 모두 수학의 기회를 다시 주고 그리고 현 재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졸업정원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한편 평생교육의 원리에 입각하여 시기와 단위의 수를 제한하지 말고 수학과 재수학의 기회를 널리 개방하는 제도는 앞으로 보다 널리 검토하여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한 차원에서 각 대학의 자원에 의해 채택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설립 이념과 교육 방침에 따라—그것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대학의 경우 성적 불량자에 대한 학사 제적을 포함한 학사 징계 사항은 각 대학 나름대로 그 수준과 정도 및 운영 방안을 신중히 연구하여 학교의 규정으로 마련하고 입학 지원자를 위한 입시 요강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응시자들이 사전에 분명히 알고 지원케 하며, 이렇게 해서 입학된 학생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가 및 학사 제적을 포함하여 정해진 엄정한 학사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